

2014

갑오년 새해벽두 일천만 한국불자와 세계 불교계에 전하는 신불교의 메시지

I. 왜 신불교, 영산불교인가?

영산불교는 부처님의 법통을 이어받은 가섭존자 광명 만덕 큰 스님과 아난존자 자재 만현 큰스님께서 왜곡되고 왜소화된 기존의 말법시대 불교를 혁파하고 정법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개창한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입니다.

1. 영산불교는 부처님의 법통을 이어받은 정법불교

◆ **정법을 부촉 받은 가섭존자와 아난존자**
부처님께서는 영산 당시 가섭존자와 아난존자에게 부처님의 법통을 전수하셨습니다. 당시 가섭존자에게 분소의를 물려주신 것이라든가 세 곳에서 마음을 전했다는 삼처전심, <증일야합경 서품>의 법통전수 증언내용 등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대승의 <대반열반경 애란품>에서도 부처님께서는 “내가 가진 위없는 바른 법을 이제 모두 마하가섭에게 부촉하였으니, 이 가섭은 너희들의 큰 의처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대비경 이제비유부촉정법품>에서는 아난에게 “내가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아승기 겁을 통해 익힌 아늑다라삼막삼보리와 큰 법의 보장(寶藏)을 너에게 부촉하니, 잘 설하여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간곡히 당부 하셨습니다.

◆ **법통제자 가섭 광명 만덕, 아난 자재 만현 큰스님 영산 불교를 개창**

정법을 부촉하신지 2600여년이 지난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부처님께서는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를 뫼다 만들어 데려가시기 위해, 신불교 정법시대를 열기 위해 불신으로 와서 현저사에 상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산 당시 가섭존자 광명 만덕 큰스님과 아난존자 자재 만현 큰스님께서는 부처님의 지도로 한국에서 불교를 이루셨습니다. 광명 만덕 큰스님께서는 붓다의 신봉으로 부처님의 법을 상속한 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수보살 법왕자 아난존자 자재만현 큰스님과 함께 영산불교를 개창하여(불기 2551. 음 6.15) 정법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날 광명 만덕 큰스님은 부처님의 법통을 자재 만현 큰스님께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 증표로 33쪽 가사를 물려주셨습니다.

◆ **<열반경>의 이자삼점(伊字三點)의 비밀과 정법의 출현**

붓다의 출세와 정법의 출현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는 <대반열반경>과 <화엄경>과 <증일야합경> 등에 담겨 있습니다. <대반열반경 수명품>에서 말하는 이자삼점(伊字三點)의 비밀장은 삼십을 갖춘 세 번의 붓다가 출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중 두 번의 붓다는 바로 부처님의 법통을 전수하신 광명 만덕 큰스님과 자재 만현 큰스님입니다. 정법과 관련하여 <대반열반경>에서는 영산 당시 아함경의 가르침을 반쪽자리 글자의 가르침(반자교, 半字教), 즉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라 하고, 앞으로 온전한 글자의 가르침(만자교, 滿字教), 즉 차원 높은 완성된 가르침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신불교인 영산불교입니다.

2. 영산불교는 왜곡되고 왜소화된 기존불교를 혁파한 신불교

왜곡되고 왜소화된 지금 세계불교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부처님 없고, 인간 영혼체 없고, 불보살 되는 수행법이 없는 3무불교(三無佛敎)라는 것입니다. 이의 근본원인은 “무아론의 왜곡” 때문입니다.

◆ **지금의 세계불교는 부처님 없는 불교**

부처님께서는 시공과 유무를 초월한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의 불교는 부처님의 살아계신 인격적 불신(보신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마음이 부처라고 합니다. 2600여년 전 인도 땅에서 열반하신 부처님은 공(空)으로 돌아가시어 완전히 무화(無化)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화경>

◆ **지금의 세계불교는 불보살 되는 수행법이 없는 불교**
남방불교의 위빠사나 수행은 아라한이 목표입니다. 자력수행에만 의지하기 때문에 불보살이 되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북방 불교의 참선수행은 불교의 정통수행법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의 간화선은 경전에 없는 외도 수행법입니다. “견성성불(見性成佛)이나 심즉시불(心即是佛)이라는 교의는 본성을 깨치는 것과 부처가 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대망어입니다. 티베트밀교에서 삼밀수행으로 즉신성불(即身成佛)한다는



초파일 10만 봉축등으로 장엄된 현사 전경

논리도 불신(佛身)을 모독하고 불교를 왜소화시키는 대망어입니다. 불신(보신)은 우주본성과 완전히 합일 될 때 무아속 절대계에 만들어지는 것이지, 삼밀수행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무상유가 떠돌아 수행과정의 하나인 성(性)유가는 외도의 수행법입니다. 불보살이 되는 수행법은 정명염불뿐임을 말씀드립니다.

3. 영산불교는 21세기 지금 이 시대 부처님(보신불)의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2600여년 전에 인도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불교의 씨앗을 뿌리시고 근본교설인 아함경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5-6백년 후에는 문수보살님 등 붓다의 화신을 사바세계에 보내시어 대승경전을 편찬케 하고 영산 당시보다 한 차원 높은 대승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21세기에 들어 부처님께서는 불신(보신)으로 한국에 오셔서 광명 만덕 큰스님과 자재 만현 큰스님을 지도하여 불교를 이루게 하고, 두 분 큰스님을 통해 최고 차원의 완성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산불교는 바로 21세기 지금 이 시대 부처님 보신불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II. 인간 그리고 우주만물은 어떻게 생겨났나 - 우주론

1. 하느님 창조설은 허구 - 기존 종교·철학은 인간 탄생비밀 못 밝혀

인간과 우주만물의 창조원리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유대교·이슬람교 등 일신교에서 주장하는 하느님 창조설이고, 다른 하나는 불교·도교·힌두교 등에서 주장하는 자연법칙설입니다. 불교에서는 우주만물이 공(空)에서 나왔다고 하고, 힌두교에서는 범(梵)에서, 도교에서는 도(道)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생성과정을 포함하면 불교는 공과 연기법, 힌두교는 법과 전변설(轉變說), 도교는 도와 도생설(道生說)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힌두교나 도교의 우주론은 인간 생성과정의

2. 인간과 우주만물은 공에서 나와 중생의 공업과 공·연기법에 의해 생성

우주만물을 창조한 하느님은 없습니다. 우주의 생성원리는 중생의 업과 공·연기법입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 “우주는 푸른 하늘에 갑자기 구름 한 점 일 듯, 이 세상 천지만물, 우주가 생겨났다.”고 하셨습니다. 최근의 부처님(보신불) 말씀은 더욱 명확합니다. “하나님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지 본래 법

계엔 주인이 없단다. 우주본체인 공과 하나 되어 자기 청정법신을 둔 붓다가 법계의 주인이 된다. 저 하늘의 태양이나 달, 별, 이 모든 것들은 자연으로 생겨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란다.” 공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自存者)입니다. 공은 우주에 두루하는 실상이고 불생불멸하는 우주대생명입니다. 지혜자적이고 사랑자적이고 조화자체이며 빛의 존재입니다. 공은 우주로 생성, 윤행시킬 수 있는 힘과 프로그램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법계에는 수많은 우주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의 공간적 구조는 삼천대천계계입니다. 우리 우주는 사람이 생노병사를 하는 것처럼, 지구에 봄·여름·가을·겨울이 있는 것처럼, 공·과·공(成·住·壞·空)이라는 네 주기를 거치면서 무한순환을 반복합니다. 우주는 탄생해서(성경) 존속하다가(주집) 파괴되고(괴집) 공(空)으로 돌아가는데(공집) 각 단계마다 20겁, 총 80겁이 걸립니다. 지금은 주집이고 붓다는 주집에 탄생합니다. 괴집이 되면 인간과 우주만물이 파괴되고, 공집이 되면 인간 영혼체는 영적 씨종자로 회귀하여 공으로 돌아옵니다.

3. 인간과 우주 생성의 지고한 비밀 - 유아성기론(唯我性起論)

◆ **인간의 씨종자인 공아자에서 드러난 영혼체**
우주는 공의 힘과 중생의 공업력(共業力), 연기법에 의해 생성되고 윤행됩니다. 영산불교는 우주만물이 우주본성인 공에서 나왔다는 성기론을 새로운 차원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주만물이 생성되는 성질이 되면 우주본체인 공에서 물질의 씨앗인 질료인(質料因)과 인간 씨종자인 공아자(空我子)가 영적 실재로 드러납니다. 이와 함께 공 자체의 에너지에 의해 질료인과 공아자는 상호 중중무진연기를 하여 좀 더 진전된 영적 실체를 형성합니다. 이 영적 단계의 인간 실체를 영혼체 또는 영체라고 합니다. 공아자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인간본체인 1번 영체입니다. 곧이어 2번 영체와 3번 영체가 갖추어지면서 업이 달라 붙습니다. 이렇게 하여 1·2·3번 영체를 가진 영체인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영체인간은 ‘나(我), 주인공’으로서 나의 본체이고 창조주체입니다. 영기의 주체인 공이 윤회의 주체이고 해탈의 주체입니다. 물질 우주의 창조는 공 자체의 힘에 중생의 공업력(共業力)이 가세하면서 연기법에 의해 빽뻏(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시작됩니다. 빽뻏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현대과학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주가 생긴 지 137억년이 되었고, 지구는 45억년이 되었다고 현대과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 **영혼체가 별천지에서 온 조상인간을 부모로 하여 육체 인간으로 탄생**

이제 계속하여 육체인간의 탄생에 대한 만고의 비밀, 그 비밀의 베일을 벗겨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생겨난 영체인간은 괴집 당시 자기가 살았던 세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지옥에 있었다면 지옥으로, 하늘에 있었다면 하늘세계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괴집 당시 육체인간으로 있었던 영체인간은 바로 인간의 육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통하지 않으면 육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체는 부부가 결합할 때 모태로 들어가 수정이 되고, 모태에서 4번 영체가 생겨야만 육체를 갖고 세상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에는 지난 괴집 시 모든 인간이 파괴되어 한 사람의 육체인간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연은 인간종족의 보존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차원(異次元) 별천지에 사는 사람들의 지구로의 이주대책입니다. 이 별천지는 인간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과거 괴집 시에 인연에 의해 선별된 지구대표 인간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우주 밖에 있는 인간들의 낙원, 무릉도원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아를, 딸 한 명씩을 낳고 살고 있는데 수명은 50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의 하루는 지구 100년 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나중에 성질이 되어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지구로 귀환, 각 대륙별로 돌아가서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따라서 영체인간들은 이 별천지에서 온 인간조상들과 부모의 인연을 맺고 모태 속으로 들어가 수정이 되고, 10개월간 자란 후 인간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모태에서 네 번째의 영체(4번)가 생기면서 인간은 네 개의 영체와 하나의 육체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믿기 어려운 철학 같은 진실입니다. 이렇게 ‘나(我), 주인공’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영산불교의 성기론은 기존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적 성기론과 확연히 구별되는 유아성기론(唯我性起論)으로서, 매우 차원 높은 이론입니다. 특히 공(空)에 내재된 인간종자가 영체로 자라나고 다시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되니까 그의 비밀을 인류사 최초로 공개하면서, 상상 속의 별천지 무릉도

원의 실존을 밝힌 것은 신불교 성기론의 백미(白眉)라 할 만합니다. 이는 영산불교가 동서고금의 어떤 종교·철학도 넘보지 못할 가장 차원 높은 진리를 선포한 우주적 메타종교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한국에서 탄생한 최고의 한류사상으로서 세계적 자랑거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III. 인간 영혼체의 실제적 비밀 - 인간본체론

1. 영혼체의 구조와 기능 - 네 개 영체의 비밀

우리 인간은 4개의 영체와 하나의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체는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영혼체는 전자파 에너지의 형태를 띤 생명체로서 의식과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체는 끈끈이막 같은 것에 의해 4개로 겹쳐진 상태로 계단식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립자보다 더 작은 초미립자로 되어 있으며 입자와 파동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동으로 본다면 영체는 파장이 극히 짧은, 곧 진동수가 극히 많은 전자파 에너지의 형태를 띤 생명체입니다. 인간의 4개의 영체를 질적 수준에 따라 각각 1·2·3·4번으로 구분한다면 1번이 가장 차원이 높고, 4번으로 갈수록 차원이 낮은 영체입니다. 4번 영체는 우리 몸과 100% 닮았습니다. 1·2·3번 영체는 모습이 약간씩 다르지만 근간은 닮은 형입니다. 1·2·3번 영체는 항상 움직여 다니면서 영월히 죽지 않습니다. 영체는 생명활동에서부터 업의 저장기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4번 영체는 육체의 복사체로서 육체와 나머지 세 영체를 접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육체와 함께 생명 유지와 생리적 기능의 원천으로 작용하며 주로 감정과 욕망의 영역을 담당합니다. 이 4번 영체는 모태 속에서만 생기는 한시적 생명체입니다. 명부에 들게 되면 4번 영체는 탈락 됩니다. 3번 영체는 감성을 주로 담당합니다. 2번 영체는 분석·추리·기억 등 지적 기능을 주로 담당합니다. 1번 영체는 입자를 완전히 초월한 빛의 존재로서 이성적, 예지적 기능을 주로 담당합니다. 이 중에서 1번 영체가 인간의 실체, 즉 본체입니다.

2. 영혼체는 인간의 본체이며 연기와 윤회의 주체

영혼체는 인간의 본체로서 연기의 주체가 되고 업을 짓는 행위의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선악의 행위는 업으로 모두 영체에 반영되어 과보를 받습니다. 이 영체에 기록된 우리의 업을 인생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회를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인생성적표에 따라 지옥·아귀·축생·인간·아수라·천상 여섯 세계를 끝없이 돌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영혼체는 과보를 받는 주체로서 이 여섯 세계를 살아가는 윤회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불교에서는 무아론을 잘못 해석하여 영혼체가 없다고 하면서 심식류가 윤회의 주체라고 하는가 하면, 업상속설이나 오온상속설을 주장하면서 윤회의 주체가 필요 없다는 무아윤회의 논리까지 주장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참으로 통탄해마지 않는 망발적인 사마와설입니다. 무아윤회는 있을 수 없고, 아뢰야식을 포함한 심식류는 결코 윤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무아윤회는 “업을 지은 자가 과보를 받는다”는 인과법에 배치됩니다. 인과법에 의하면 당연히 업을 짓는 주체와 과보를 받는 주체가 있어야 하고 두 주체는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육신이 없는 식(識)은 업을 저장할 수도 독립적인 개체가 될 수도 없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몸통이 없는 식이, 찰나생 찰나멸하는 식이 지옥열 가오 하늘을 가고 해탈을 합니까? 이것은 삼척동자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무아라 해서 나의 본체인 영혼체가 없다면 업과 윤회와 해탈의 논리도, 불보살의 존재도 근거를 잃게 되고 따라서 불교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3. 영혼체의 청정도·분리도와 영체별 가는 세계

중생의 영혼체는 심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물통에서 막 건져낸 것처럼 악취도 나고 더럽습니다. 솟경명이 같다고 합니다. 먼저 영체의 색깔별 가는 세계를 보겠습니다. 지옥·아귀·축생의 삼악도에 갈 영체는 검은 색깔입니다. 하늘세계(1~6하늘 54품)에 갈 영체는 흰색이지만, 6하늘에 가는 영체는 회색입니다. 성중하늘(1~3하늘 27품)에 가는 영체는 빛이 납니다. 윤회를 벗어나는 아라한 영체는 보름달처럼 빛이 납니다. 다음은 영체의 분리도와 가는 세계입니다. 대부분의 중생은 영체가 완전히 붙어 있지만, 깨끗할수록 모양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분명하게 분리 됩니다. 하늘세계의 천인은 영체가 붙어있지만 다섯 손가락처럼 모습이 드러납니다. 윤회를 벗어나는 아라한은



약사삼존불을 봉안하는 점안식 - 약사여래부처님과 좌우보처 일광불 일광변조보살님 월광불 월광변조보살님께 스님들이 공양을 올리고 있다

<공광명최승왕경> 등 주요 대승경전과 논서에서 부처님의 실존 근거와 불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어도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지금의 오락약세 말세불교의 실상입니다. 부처님을 모르고 부처님의 구원력을 모르는 불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 **기존불교는 무아론을 왜곡하여 영혼체를 불인정**

부처님의 무아 교설은 현상세계 모든 존재의 실제 없음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실천적 의미는 물론 “나에 대한 집착”이나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세계불교는 이를 잘못 해석하여 현상계 너머 본체계의 존재인 인간 영혼체 마저 없는 것으로 왜곡해 버렸습니다. 무아인가 윤회주체도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잘못 해석한 무아론을 근거로 ‘무아론과 윤회주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논리를 개발했지만 이 영터리 논리가 설득력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왜곡된 무아론은 불교를 망친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본체도 부정하고 윤회와 해탈의 주체도 부정하고 불보살도 부정하면 불교의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간의 본체인 영혼체는 존재하며, 윤회의 주체는 바로 영혼체입니다.

핵심내용이 빠져 있어 껍데기 우주론에 머물고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창조설은 현대과학과 배치되고 건전한 상식을 벗어난 허구입니다. 그 이유는 ① 1만년도 안 되는 창조의 역사, 창조과정상의 모순, 무(無)에서 창조했다는 창조이론 등의 면에서 과학적 진실과 크게 배치됩니다. ② 불과 6일만에 무수한 동식물과 인간, 수많은 모래알에서부터 천체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를 일일이 설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③ 사랑의 하느님이라면 왜 장애인이나 불행한 사람을 만들었고, 왜 착한 사람이 못 살고 악한 사람이 잘 사는지 하는 현실상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철학의 경우, 존재의 근원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정리해 보면 물질적 요소기원론, 형이상적 실재론, 유신론, 실존론, 불가지론의 다섯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지만, 인간과 우주만물의 생성과정과 같은 깊은 비밀은 제대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과학적 입장에서는 빽뻏이 통설이지만 빽뻏이 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대해서는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빽뻏이전 상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현저사 부산분원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 - 불교사의 새 장을 열다!!

영산불교는 인류사 최초로

- 1. 인간·우주탄생과 영혼체의 비밀을 밝힌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
- 2. 사후세계의 실상을 직접 보고 정립한 행복 생사관의 신불교
- 3. 부처님의 실존과 무한한 위신력을 밝힌 인류 구원의 신불교

오리손 정도로 분리됩니다. 정도보살이 되면 영체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리고 붓다는 네 개의 영체가 개별주체로서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체별 가는 세계를 보겠습니다. 죽어서 저승에 못 들어가는 귀신은 4번 영체로 중음계에 갑니다. 저음계는 3번 영체(4번 영체 속부분 포함)로 갑니다. 하늘세계에는 3번 영체로, 성중하늘에는 2번 영체로 갑니다. 극락세계에는 1번 영체로 갑니다. 각 영체안에는 나머지 영체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붓다의 절대계에 가려면 네 개의 영체 모두가 빛명어가 되어야 합니다. 네 영체는 개별적으로 활동하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IV.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 - 생사관

인간의 본체인 영혼체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입니다. 인간으로 사는 100년 남짓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을 우리는 몸뚱이 없는 영혼체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후세계가 행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행복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후세계의 존재와 실상을 명확히 알아야 올바른 생사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계를 저승이라 합니다. 불교에서는 명부라고 하는데 이 명부를 총괄하시는 부처님이 지장보살님입니다. 그리고 명부에 들어온 영가들을 심판하는 열시왕이 있고, 이승에서 수를 다한 사람의 영혼체를 저승으로 데려오는 저승사자(일직사자, 율직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도 저승에 못가는 무주고혼이 있는가 하면 정도보살 처럼 저승의 심판을 거치지 않는 성자도 있습니다.

일단 저승에 들어간 영혼체는 49일 동안 열시왕의 심판을 받고 지은 업에 따라 가는 곳이 정해집니다. 이 영혼체들이 가는 세계는 크게 육도윤회계와 해탈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저승에 못 들어간 귀신이 사는 세계 - 중음계

생전에 가족이나 재물에 대한 집착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 자살이나 비명횡사한 사람, 큰 병으로 죽은 사람 등은 저승에 들어가지 못하고 귀신이 되어 떠돌아다닙니다. 최근 현자 천도재의 통계를 보면 죽은 사람의 40%가량이 중음계로 간다고 합니다. 중음계의 귀신들은 출고 배고픈 환경 속에서 의식주와 욕망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게 되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중음계는 4번 영체가 주가 되어 살아가는데 임종 당시의 기억과 의식을 그대로 갖고 갑니다. 따라서 큰 병으로 죽은 사람은 귀신이 되어서도 그 병의 고통을 그대로 받습니다. 조금 편하게 살아보았다 후손들에게 빙의하게 되면 영가장을 일으켜 후손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천도시켜 하루 속히 저승으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현지사 고성분원

2. 죽어서 가는 고통의 육도윤회세계

<지옥>은 살생·절도·사음·대망 등 10종의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 형벌을 받는 무서운 곳입니다. 형벌이 가장 무서운 것부터 차례로 극구간지옥·구간지옥·중지옥·하지옥·대지옥의 다섯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중지옥 이상은 영혼체가 혼절할 정도로 가혹한 형벌이 자동으로 집행됩니다. 불바다지옥, 화랑지옥, 한방지옥, 칼산지옥, 독사지옥 등 현실세계의 감옥은 천국이라 할 만큼 지옥은 극심한 고통을 받는 무서운 곳입니다.

<아귀>는 생전에 극히 인색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 기아와 목마름의 고통이 극심한 곳입니다. 물이나 음식이 들어 가면 바로 변해버린다고 합니다.

<축생>은 생전에 우치하고 사견에 빠진 사람, 음란한 성생활을 한 사람이 가는 세계입니다. 돼지부터 시작하여 열두 띠를 돌게 되는데 개를 끝으로 사람 몸을 받아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 동물로 여러 생을 살기도 합니다.

<인간>은 지은 업에 따라 지옥중생의 삶에서부터 붓다의 삶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의 생을 누립니다. 하늘의 별들에는 기체인간(외계인)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에는 온갖 마왕이 많지만 이를 극복하고 수행을 잘 하면 그만큼 행복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수행의 적지이기도 합니다.

<아수라>는 1하늘 하품 정도에 해당하는 별도의 하늘로서 생전에 복은 많이 지었으나 싸움을 많이 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다툼이 많지만 부유다복한 곳입니다.

<하늘계>는 육계6하늘 54품, 성중3하늘 27품이 있습니다. 이 중 성중 1하늘 5품 이상은 윤회를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윤회

안의 성중하늘은 성중 6~22품을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가는 곳으로 즐거움이 많은 곳입니다. 성중하늘에 가려면 어느 정도 선정에 들 수 있어야 하며, 이 곳은 육계 6하늘보다 훨씬 안락한 곳입니다. 하늘세계는 3번 영체, 성중하늘은 2번 영체로 갑니다.

3.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해탈세계

윤회를 벗어난 성자가 가는 세계를 해탈계라고 합니다. 공을 깨



현지사의 대적광전과 석가탑, 다보탑

친 경지, 화두를 타파한 경지인 견성을 한 후 계율을 엄격히 지키면서 '나 없는 수행'과 '보살행'에 정진하여 '나'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떨어져야 해탈을 합니다. 해탈법위는 '아라한- 무루대아라한- 천녀- 보살대기- 정도보살- 불격을 갖춘 최상수보살- 붓다'의 순서가 됩니다.

<성중해탈계>는 성중 1하늘 1~5품으로서 윤회를 벗어난 성자(아라한)가 가는 세계입니다. 성중해탈계는 2번 영체로 가며 영체는 보름달 같이 빛이 납니다. 아라한은 그곳에서 영원히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해탈계로 가기 위해 원에 의해 사람 몸을 받아 오게 되면 다시 윤회세계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도계>는 보살이 가는 해탈적멸계로서 극락(極樂)을 누립니다. 아미타부처님의 극락세계(27품)가 있고 그 위에 약사부처님의 약사정도(27품)가 있습니다. 기존교에서 보면 보살 8지 이상에 해당합니다. 보살은 정도에 자기의 분신(아기보살)을 갖기 때문에 윤회세계로 떨어지지 않는 불퇴전의 지위입니다. 정도보살이 되려면 ① 4중죄 소멸 ② 4영체 완전 분리 ③ 정도에 자기의 분신(보살아기) 보유 ④ 여자라면 영체의 성을 남자로 전환(번녀성남) ⑤ 약사정도의 청정한 피 교체 ⑥ 가까운 친척이 악도에 없도록 천도할 것 등이 필수적이므로 부처님의 가피가 없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1번 영체로 가며 영체는 아침햇살처럼 빛납니다.

<무아속절대계>는 우주법계에서 가장 차원 높고 행복한 극락중의 극락세계입니다. 상적광세계이고 연화장세계입니다. 최고의 우주성자 붓다가 가시는 세계입니다. 우주본체와 완전히 100% 하나가 되어야 갈 수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최초로 뉘고 들어가신 세계입니다. 언제나 대적정삼매에 들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량의 환희를 누리는 궁극적인 해탈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최고의 목표입니다. 붓다가 되려면 부처님의 선택과 지도와 인가가 필요합니다. 붓다가 되면 법신불·보신불·화신불의 삼신을 구축합니다. 네 개의 영체는 빛명어가 되어 불신에 결합합니다. 1·2·3·4번 영체가 함께 가는 것은 오로지 붓다 뿐입니다.

V. 부처님의 실존과 우주적 구원력을 말하다 - 붓다른, 구원론

자연법칙인 인과법에 의하면 착한 행위를 하면 즐거운 과보를 받고(善因樂果), 악한 행위를 하면 고통스런 과보(惡因苦果)를 받습니다. 이 업이 저장되는 장소가 영혼체입니다. 영혼체에 저장된 악업의 업장 때문에 인간은 가난·병고·재난 등의 고통을 받고, 사후에는 지옥·아귀·축생세계를 돌면서 윤회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영혼체의 업장을 소멸시켜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고 행복의 세계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장은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자연법칙과 완전히 하나 된 부처님께서 업장소멸이라는 구원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1. 무아속 절대계에 불신으로 존재하시는 부처님

부처님과 불과를 이룬 모든 붓다님들은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십니다. 이것은 신불교인 영산불교가 세상을 향해 외치는 사자후입니다.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가 우주본체와 완전히 하나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계에 당신의 불신을 두십니다. 부처님의 실존은 바로 이 불신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최초불이신 우리 부처님과 모든 붓다님들은 법신, 보신, 화신의 세 가지 불신으로 존재하십니다. 법신불은 부처님의 성품과 지혜가 우주본성과 완전히 합치된 비인격적 우주적 광명지체(智體)이고, 보신불은 32상 80호를 갖추고 중생을 구제하시는 무량광 빛의 인격체이며, 화신불은 중생교화를 위해 보신불이 만들어진 분신체인 것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실존은 중심불인 보신불의 존재를 말합니다. 불신이 있다는 것은 부처님 실존의 증거이고, 우주본체와 완전히 합일 되었다는 증거이며, 업장소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이 계시기에 불교는 진정한 구원의 종교입니다.

2. 부처님만이 진정한 구세주, 불교만이 진정한 구원종교

부처님께서 우주본체인 공과 완전히 합일이 되었기 때문에 공의 무한한 질료와 정보를 자유자재로 조합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을 정도로 전지전능하고 만능자재하십니다. 부처님의 우주적 능력은 불신(佛身)을 이루고 있는 역종의 무량광에서 나옵니다. 무량광 하나하나마다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역종의 무량광이 갖는 능력은 가히 무

평화불교론입니다. 이러한 호국평화와 중생구제를 위해 새로운 차원의 우주적 구원주체가 있습니다. 바로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붓다님들의 합일체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입니다. 비로자나불은 부처님의 법신불로서 원래는 인격체가 아니지만, 여기에 모든 붓다님들의 보신불이 들어가면 하나의 우주적 인격광명지체(智體)가 되면서 부처님과 모든 붓다님들의 우주적 능력이 합쳐진,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불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로자나부처님은 가히 하느님이나 창조주와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로지 불교에서만 있을 수 있는 희유하고도 불가사의한 우주적 구원주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교만이 진정한 구원의 종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산불교 현자사에서 비로자나부처님이 정기적으로 쓰시어 남북의 평화통일과 국운융창, 지구촌 평화를 위해 우주적 구원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 인류는 이 크나큰 은혜를 알고 부처님께 오체투지 고맙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VI. 영원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 수행론

1. 정법에 귀의하여 석가모니불 칭명염불해야

우리가 행복하려면 불행의 씨앗이 되는 악업의 업장을 소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장소멸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처님회상을 만나고 정법에 귀의해야 합니다. 자력으로는 결코 업장을 소멸할 수 없기 때문에 삼악도를 벗어나기 어렵고 윤회를 벗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천만생을 가도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 회상이 영산불교 현자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부다 정법에 귀의하여 부처님의 가피를 불러올 수 있는 칭명염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금생도 잘 살고, 죽을 때는 잡자듯이 가고, 죽어서도 삼악도의 고통을 벗어나 하늘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이 있는 해탈계로 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성호를 부르는 칭명염불 수행은 대승경전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정통 수행법입니다. 모든 불보살님들께서 하신 수행법입니다. 영산불교의 두 분 큰스님께서도 수십 년간 목숨을 건 칭명염불 수행으로 붓다가 되



현지사 정기 법회

장, 특히 지중한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로지 부처님께서만 갖고 계십니다. 다른 종교의 어떤 수장도, 외도의 어떤 초인도 삼신을 갖춘 경지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업장소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주 가벼운 업장을 씻어주는 정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류와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구세주는 바로 우주법왕이신 우리 부처님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부처님께 귀의하여 지극정성 칭명염불을 하고 선근 공덕을 짓는다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는 이 구세주 사상을 바로 알고 지구촌에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불교만이 진정한 구원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 특히 지중한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로지 부처님께서만 갖고 계십니다. 다른 종교의 어떤 수장도, 외도의 어떤 초인도 삼신을 갖춘 경지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업장소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주 가벼운 업장을 씻어주는 정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류와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구세주는 바로 우주법왕이신 우리 부처님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부처님께 귀의하여 지극정성 칭명염불을 하고 선근 공덕을 짓는다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는 이 구세주 사상을 바로 알고 지구촌에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불교만이 진정한 구원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희유하고 불가사의한 우주적 구원주체 -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영산불교를 관통하고 있는 이념은 중생구제와 호국평화불교의 실현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국은 통일이 되어 잘 살아야 하고, 지구촌은 큰 전쟁 없이 평화로워야 합니다. 이른 바 호국·

셨습니다. 칭명염불 중에서도 붓다 중의 붓다이신 석가모니불 칭명염불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지금 인격적 불신으로 한국 현자사에 오 계십니다. <금강경> 읽고, 부처님 다라니 독송하고, 간절하게 소리 내어 석가모니불을 불러야 합니다. 배고픈 아기가 엄마를 찾듯이, 아주 간절히 불러야 합니다.

2. 청정계율을 지키고 효행·보살행을 해야

계율은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라는 부처님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계를 없이는 선정에 들 수 없고, 부처님의 가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청정계율을 묵숨같이 여기는 마음을 갖고, 불살생·불투도·불사음·불망어·불음주의 5계와 10선을 철저히 지키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은 죄는 진심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부모조상님께 효를 다해야 합니다. 효는 불교의 중심사상으로서 윤리적 개념을 넘어 우주이법 차원의 빛(은혜)을 감는 행위입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잘해드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효는 사후에 축성이 되었거나 아귀, 지옥에 떨어져 극심한 형벌을 받고 있는 부모조상님을 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주관하는 천도재를 지내주는 것이 최고의 효행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끊임없는 보살행으로 선근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불쌍한 이웃을 돕고, 자비 이타행을 생활화하여 선근 보따리를 열심히 키워나가야 수행의 진전이 빠르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혜와 복덕은 해탈로 가는 양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 회상에서 짓는 선근공덕은 최고의 선근공덕으로서 높은 해탈계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자량이 됩니다.

3. 자손의 행복을 위해 관음태교를 실천해야

태교는 태아의 일생을 좌우하며, 출산 후의 평생교육보다 더 중요합니다.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자손대대의 행복을 위한 수행이고 교육입니다. 특히, 관음태교는 부처님께서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 직접 말씀하신 태교법이고, 관세음보살님께서 삼매 중에 현신하시어 자제 만연 큰스님에게 부촉하신 새로운 차원의 태교법입니다. 관음태교는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임태 전에는 좋은 영혼체와 인연을 맺게 해 줄 수 있고, 임태 후에는 업장 정화를 통해 천재와 성현을 길러낼 수 있는 전인교육적 태교법입니다. 외국의 어떤 태교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계적 인재를 길러내는 태교법으로서 국가차원에서 적극 장려해야 할 태교법입니다.



현지사 대건분원

■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 춘천분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95
- 부산분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2동 1439-2이센타워 15층
- 대전분원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14-39

메일 hyunjigong@hanmail.net

- ☎ 033-243-1787
- ☎ 051-554-5150
- ☎ 042-525-5325

- 고성분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195-2
- 서울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1동 630-41
- 대구분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50-13

- ☎ 033-681-5515
- ☎ 02-453-5953
- ☎ 053-654-5557

- 제주분원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1163
- 일본분원 일본국 아미구치겐 이와쿠시 히라타
- 영산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14-39
- ☎ 064-783-5355
- ☎ 0827-34-1626
- ☎ 042-525-5325